



전은, 완주군에 'JB희망의 공부방' 2곳 새단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2곳의 학습 환경 개선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완주군 용진지역아동센터와 운주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28호, 제229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과 학습 기자재를 개선해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진지역아동센터는 벽면의 곰팡이와 페인트 박리 현상이 심해 위생과 건강에 우려가 컸고, 안전사고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은행은 도배와 페인트, 장판, 블라인드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오래된 인공 책걸상을 교체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운주지역아동센터는 학습 물품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프로그램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아동 개개인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새로운 책상과 의자, 책장 등을 지원해 학습 환경을 개선했으며, 낡은 배식대와 식탁도 교체해 보다 편안한 식사와 간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유혜태 완주군수와 각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전북은행 임직원 등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공부방을 둘러봤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공통부모교육 진행

남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조성을 위해 관내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통부모교육'을 지난달 24일과 31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 첫날인 24일에는 아동권리 존중을 주제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학습하며 일상에서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31일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학대와 훈육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훈육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경찰, 노인대학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 교육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민)는 1일 군산시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근 증가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수칙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반복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김만호 기자

부안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부안군은 지난달 31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의 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공동 개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도, 중등 정세 불안 대응 위해 현장 홍보... 생활물가 안정 나서

고 있다. 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공공부문 이용 실적 이 총 140회로 집계돼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도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방문 인증 이벤트와 대국민 추천 공모 등을 통해 이용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배달앱 등 소비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별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업소당 연 11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과 환경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2011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2023년 3월 기준 도내에는 총 502개소가 운영 중이며, 외식업 400개소, 이·미용업 75개소, 숙박업 13개소, 기타 업종 14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goodprice.go.kr)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정읍 전통주 '빨간월탁', 전북자치도 '올해의 건배주'

농업회사법인 '한국술도가'에서 생산

정읍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한국술도가'에서 생산한 '빨간월탁'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6년 올해의 건배주' 탁주 부문 대표주로 최종 선정됐다. '올해의 건배주'는 전북자치도가 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시·군을 통해 총 17개 제품이 출품됐으며, 엄격한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등 4개 부문에서 각 1점씩 총 4개 제품이 선정됐다. 탁주 부문 건배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빨간월탁'은 맑은 물과 정읍산 찹쌀을 주원료로 빚은 전통주다. 특히 인공색소 없이 붉은 누룩곰팡이로 발효한 홍곡을 사용해 은은한 붉은빛의 시각적 매력을 살렸으며 저온 숙성을 거쳐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구현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빨간월탁'은 앞으로 전북자치도 공식



행사의 만찬주로 건배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류 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배주 선정은 정읍 전통주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술도가'는 지난 2023년 제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도지사상을 받는 등 꾸준히 품질을 인정받으며 지역 전통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진안군-정읍시,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상생협력 다져

진안군청과 정읍시청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기부에 나서며 지역 상생 협력의 모범을 보였다. 양 기관은 각각 100명의 직원이 참여해 서로의 지역에 기부를 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실천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 간 유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진안군청 직원들은 정읍시의 발전을 응원하며 기부에 참여했고, 정읍시청 직원들 역시 진안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은 상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각 지역의 인기 답례품을 홍보하고 상호선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마련했다. 더불어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도 함께 홍보하여 문화 관광 등에 분야도 함께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한편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간 상생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함께 이룰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도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상생 발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청 민원과, 춘향제 맞아 한복 입기 캠페인

남원시 민원과가 제96회 춘향제를 위해 전 직원이 한복을 착용하는 '한복 입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축제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4월 1일부터 춘향제 기간(4월 30~5월 6일)까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에서부터 축제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글로벌 K-전통문화 고유의 멋을 알릴 목적으로 남원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로 각인시키겠다는 취지다.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은 "시청이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남원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춘향제를 앞두고 한복 차림으로 시민을 맞이하는 것은 일상 속에 깃든 남원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특별한 민원행정 서비스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민원실 문화를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아영면, 독거노인 생활불편 민원 해결 나서

남원시 아영면 맞춤형복지팀은 지역 내 독거노인의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마을 이장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 교체를 지원하며 신속한 민원 해결에 나섰다. 이번 사례는 전등 고장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독거노인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 해당 어르신은 고령으로 인해 어두운 실내 환경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맞춤형복지팀은 즉시 마을 이장을 섭외해 협조를 요청했고 이장의 도움으로 노후된 전등을 교체하며 민원을 신속히 해결했으며,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인적 지원을 연계한 민관 협력 사례로 주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림

▲순창중앙 흥무왕 춘향대제= 일시: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완산사(완산구 봉곡리 1길 5-2), 주최: 가락 전북특별자치도 춘천회, 문의: 063-284-2040



고창농악보존회 제9·10대 회장 이·취임식

(사)고창농악보존회는 최근,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에서 제9대·제1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식 고창군부군수, 고창군의회 군의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농악 관계자, 보존회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취임식에서는 제9대 구재연 회장이 이임하고, 제10대 임성준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공로패 전달, 이임식 및 취임식, 축하 법연, 인기 이양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재연 이임 회장과 고공을 이임 부회장은 고창 농악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가 수여됐다. 행사는 법연이 이양식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운암면 주민자치위, 임실 애향장학금 기부

지난달 30일 군수실에서 운암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박민경)가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운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모니카, 방승댄스, 노래교실, 압화, 목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소통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 또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깨끗한 순창 만들기 나서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1일, 경천 및 양지천 일원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창을 만들기 위한 "농협 순창군지부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행사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순창의 내방객 방문시기를 맞아 '깨끗한 순창'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순창 모습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의 행동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활동 참가한 농협 순창군지부 지부장을 포함한 참가 직원들은 순창군 주요 하천변인 경천과 양지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집중수거하고, 인근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정리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순창=이양일 기자



부안 농기센터, 보자기전통공예전문가 과정 수료식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성)는 2026년 상반기 생활과학기술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한 보자기전통공예전문가 자격과정의 수료식을 통해 지난날 31일 성과전시회와 함께 수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과정은 농촌 여성의 전문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농산품과 농산가공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포장기법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보자기전통공예전문가 교육은 10회 과정으로 보자기 기초 매듭부터 병·책 포장기법, 가방·소품 제작, 꽃매듭 응용, 작품 제작 및 성과공유회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10명의 교육생이 자격을 취득했다. /부안=김석진 기자